

15분 모의고사 10회 정답 및 해설

(1109 모의평가)

문 법

1. ③ 2. ⑤

1. 어휘·어법 (어휘의 의미 구별)

정답해설 : ‘찢다’는 ‘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르다.’는 뜻이므로 도구를 쓰지 않을 때의 표현이며 ㉠에 해당한다. ‘뺨다’는 ‘짓궂어서 가루로 만듦’의 뜻이며, 절굿공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고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㉡에 해당한다. ‘다지다’는 ‘고기, 채소 양념감 따위를 여러 번 칼질하여 잘게 만듦’ 뜻이며, 칼을 사용하여 잘게 만드는 경우이므로 ㉢에 해당한다. ‘썰다’는 ‘어떤 물체에 칼이나 톱을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날을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 내거나 토막이 나게 하다.’의 뜻이며, 잘게 자르지 않으므로 ㉣에 해당한다.

2. 어휘·어법 (표준 발음의 사례 분석)

정답해설 : 제시된 사례에서 기초적인 추론을 하는 문제이다. ㉠와 ㉡의 사례에서 겹받침 ‘ㄹㅂ’의 발음은 다음 이어지는 자음과 상관없이 각각 같게 나고 있다. ‘ㄷ’이나 ‘ㅈ’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‘ㄱ’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.

독 서

3. ② 4. ② 5. ③ 6. ①

[3-6] 사회, 환율의 변동과 경상 수지의 관계

지문해설 : 환율의 상승이 경상 수지를 개선한다는 통념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고 있다. 일단 환율이 오를 때 경상 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‘J커브 현상’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한다. 반면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의 상승 후에도 경상 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도 소개함으로써 환율의 상승이 단순히 경상 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. 즉 그만큼 환율 정책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.

[주제] 환율의 변동과 경상 수지의 관계 파악을 통해 신중한 환율 정책의 실시를 강조함

3. 사실적 사고(내용 일치)

정답해설 :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지만,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하게 되기도 한다. 고환율 정책은 보통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일 때 구사되는 정책이다.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단순히 ‘경상 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고환율 정책을 쓴다’라고

확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. 본문에 제시된 바처럼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. 즉 경상 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대개 고환율 정책을 쓴다는 소개는 있었지만 ㉡처럼 이를 필연성이 있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.

[오답피하기] 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. ③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되어 있다. ④ 이 글은 전체적인 체계가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는 전체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. ⑤ 환율이 상승하면 대개 경상 수지를 개선하게 되리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.

4. 추론적 사고(그래프 자료의 이해)

정답해설 :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J커브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문제 유형이다. 내용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올랐는데도 단기적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. 이 때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, 즉 ㉠부분의 경상수지가 -(마이너스)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로는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와 외국 소비자들의 지체된 반응을 들고 있다.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㉡의 설명은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, ㉢에서 말하는 ㉣부분도 그래프가 우상향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이는 경상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.

[오답피하기] ㉠. 수출 기업이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㉠ 구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치지는 구간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래로 치지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. 즉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기대지 않고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경상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. ㉡. 환율은 ㉠의 앞에서 이미 상승되었을 수 있다. 그러므로 ㉠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. ㉢은 경상 수지가 -(마이너스)를 벗어나게 되는 기준점일 뿐이다.

5. 추론적 사고(이유의 추리)

정답해설 : 환율이 오르면 경상 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생각이 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다.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

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를 추리하는 것인데, ㉠의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. 이 말은 곧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.

[오답피하기] ① 환율 상승일 때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난 후에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. ② 국내 기업이 환율의 안정성을 살펴본 후 가격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,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. ④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늦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, 이것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은 아니다. ⑤ 세 번째 단락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경상 수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6. 어휘어법(관용어구의 이해)

정답해설 : 수출 기업은 환율의 상승만을 믿고 안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품의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. 즉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. 이런 상황에는 속담은 ‘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’가 가장 적절하다.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입만 벌리고, 그 입안으로 홍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이기 때문이다.

[오답피하기] ②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는 말로,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으로 몰리면 상황을 헤쳐 나오려는 의지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. ③ 가난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, 그만큼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. ④ 재주가 많은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의미이다. ⑤ 한 가지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에 욕심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.

문 화

7. ㉠ 8. ㉠ 9. ㉠ 10. ㉠

[7-10] 고전소설 - 작자 미상, ‘김원전’

작품해설 : 이 작품은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탈각(脫却) 설화뿐만 아니라 용궁 설화, 연적 설화, 재

생 설화 등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. 주인공 김원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에 태어나 그 운명이 처음에는 불행했으나 나중에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승천한다. 주인공이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고 있는데, 이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전개 구조와 유사한 것이다.

[주제] 김원의 환골탈태와 고난 극복

7. 사실적 사고(세부 정보의 이해)

정답해설 : 김원은 허물을 벗은 다음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에 쌓여 있었던 십 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. 자신의 흉한 모습에 대해 부모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.

[오답피하기] ① 김 승상은 홍물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 선녀의 말과 선녀가 출산을 도와준 것을 근거로 자신의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. 이 과정에서 홍물이 태어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말하기는 하고 있지 않다. ② 부인은 홍물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웃으며 밥을 더 주고 있다. 이때 홍물이 밥을 주는 대로 먹는 것을 괴히 여기기는 했으나 근심하지는 않았다. ③ 노복이 홍물을 대한 부인의 태도를 비웃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. ⑤ 김 승상 부부는 홍물이 허물을 벗고 선동(仙童)이 된 것에 대해 자초지종(自初至終)을 알고 싶어 김원에게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하고 있다.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.

8. 추론적 사고(자료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)

정답해설 : 김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내실(內室)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의혹을 갖던 차에 비복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김 승상에게 월영각에 홍물이 없어지고 선동(仙童)이 앉아서 김 승상을 찾고 있다고 보고하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. 노복은 홍물이 선동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. 비복은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.

[오답피하기] ① ‘이것’은 본래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. ‘이것’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홍물로 적강(謫降)한 김원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나타낸다. ② 김원이 적강(謫降)한 인물이기 때문에 변신 과정에 선관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. ③ ‘골육(骨肉)’은 ‘혈육(血肉)’과 유사한 말로 부모와 자식 간을 일컫는다. ‘원(圓)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낸다. ⑤ ‘불초자’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김원이 부자 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.

9. 추론적 사고(개별 서사 요소의 의미 추론)

정답해설 : 김원은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㉠의 '성장'에는 부모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. 그런데 ㉡의 과정에는 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. '변신'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'선관'이다. 따라서 ㉠, ㉡의 서사 요소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[오답피하기] ① 주인공은 자신의 뜻에 의해 스스로 적당하지 않고 죄에 대한 별로 적당하였다. ②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㉠, ㉡는 김원이 적당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. 이처럼 지상계의 사건이 천상계의 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나타낸다. ③ 부모가 ㉠, ㉡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은 ㉠, ㉡가 괴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. ㉠, ㉡를 괴이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괴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. 즉 지상계의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㉠, ㉡가 괴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. ⑤ 김원은 자신이 벗은 '허물'을 통해 ㉡를 확인받고 있다. 이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김원이 지상계에 내려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확인을 지상계의 인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계의 질서가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.

10. 추론적 사고(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)

정답해설 : ㉠에서 승상 부부가 말한 것은 십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선동(仙童)이 되었다는 것이다. 이는 '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'는 '고진감래(苦盡甘來)'와 그 의미가 통한다.

[오답피하기] ② 괄목상대(刮目相對) :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,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름. ③ 권불십년(權不十年) :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,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임. ④ 동상이몽(同床異夢) :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,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름. ⑤ 오리무중(五里霧中) :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,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름.